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ouble-Incom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푸르니서초어린이집
교사 김명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강민주

Puruni Seocho ChildCare Center

Teacher : Myung Won K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n Ju Ka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in double-income couples. Participants included 102 double-income couples who had children enrolled in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The findings showed that those husbands or wives who had recognized a higher level of spousal cooperation reported to have felt lower levels of parenting stress. Further, husbands and wives who had held traditional attitudes about gender roles reported to experience higher levels of parenting stress. However, when the significance in predictability was compared, the recognition of spousal cooperation was found to be the only variable explaining the variance husbands' and wives' parenting stress levels.

주제어(Key Words) :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double-incom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s),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Min Ju Ka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mj kang@yonsei.ac.kr

* 본 논문은 2011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문의 일부임.

I. 서론

현재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 양육은 부모공동의 참여 및 책임이 요구되고 있어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문제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15세 이상의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50.5%에 이르며, 전체 여성 취업자 중 기혼 여성의 비율은 74.6%(주재선, 2007)로 이제는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적인 의식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사고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사회와 가족의 빠른 변화에 따른 정서적 혼란스러움과 실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즉 맞벌이 부부의 아내는 높은 자아가치인식과 사회활동으로부터의 보상, 심리적 보상, 경제적 이로운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활양식에 만족하지만, 아직은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해 온 가부장적 사고 하에서의 '주부' 역할로 인해 역할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강기정, 박수선, 2007). 또한 맞벌이 남편은 남편의 전통적 역할인 '부양자'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부모로서의 '양육자'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배우자'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김소영, 옥선화, 2000), 맞벌이 부부는 직장생활과 가사 및 자녀양육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특히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문제점들이 사소하지만 잠재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Peterson & Hennon, 2005).

Goldberg(1990)는 양육스트레스 인지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차이가 성역할에 대한 기대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기혼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지숙과 유계숙(2007)의 연구에서 근로자들의 성역할태도는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적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녀 양육은 여성의 몫이며 일과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여성의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고자 하는 여성은 과중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성역할태도가 부부간에 서로의 역할을 가정 내 가사 및 양육담당자라고 규정짓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에 비해 가사와 양육을 해내지 못하는데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 주 책임자로서의 성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성역할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있어

(Maume, 2006) 사회 변화에 따른 성역할태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한편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이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승이, 최혜영, 2007). Bonds, Gondoli, Sturge-Apple과 Salem(2002)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원의 형태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친정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친정 여형제 등 주로 친척관 계위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거나(이은혜, 1997), 남편의 사회적 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공통적으로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받는 구성원들이 남편을 제외하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친정여형제 등 가까운 혈연관계 중심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부에게 주어진 과제이면서도 확대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이은혜,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와 배우자 외의 친척 및 주변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긍정적 지원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녀 양육에서 배우자의 도움과 주위의 도움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완충효과 역할을 하고, 부모로서의 자신과 자녀에 대해 더 긍정적인 관점을 증가시키고(Brooks, 1996), 부모 역할 수행을 수월하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더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Berk, 1997).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맞벌이 남편과 아내는 부모 역할관보다는 배우자 지지의 영향을 더 받아 배우자의 지지가 낮으면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배우자의 지지가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김기현, 조복희, 2000; 김리진, 윤종희, 2000). 그러나 맞벌이 아내의 전통적 역할관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와 사회적 지원은 맞벌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강희경, 조복희, 1999)는 상반된 결과도 있어 맞벌이 부부의 전통적·근대적인 부모 역할관, 배우자의 지지, 자녀 양육을 하며 주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역할보다는 부모로서 전통적·근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강희경, 조복희, 1999; 김기현, 조복희, 2000), 맞벌이 가정은 남편과 아내 모

두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역할태도를 부모 역할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가정 내에서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성역할태도를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증명되어 왔으나(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 김송이, 최혜영, 2007) 성역할태도와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와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가지지 못한 경우라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김기원 외, 2010; 최정혜, 2006) 부부의 나이, 직업, 학력, 월수입, 자녀의 월령, 자녀의 성별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아기의 탄생으로 새로이 가족 구성원이 참가되고, 스스로 부모역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부모역할을 수행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태도, 사

회적 지원을 측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있지만, 대부분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을 묻는 것은 있어도(김기원 외, 2010; 김기현, 조복희, 2000; 김리진, 윤중희, 2000; 김송이, 최혜영, 2007) 부부를 쌍으로 하여 남편과 아내가 각 상대방의 협력에 대해 지각하는 것과 성역할에 대해 갖는 태도가 각자가 느끼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자녀양육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므로 부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근거로 하여 분석한 연구는 자녀양육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의 인식을 검토하여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는 부부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표 1〉 연구대상 맞벌이 부부의 인구학적 배경

(N = 204)

구분	남편 (n = 102)	아내 (n = 102)	구분	빈도(%)
	빈도(%)	빈도(%)		
연령	가정의 월수입			
25~29세	1(1.0)	3(2.9)	300~399만원	6(5.9)
30~34세	30(29.4)	60(58.8)	400~499만원	13(12.7)
35~39세	57(55.9)	38(37.3)	500~599만원	29(28.4)
40~44세	14(13.7)	1(1.0)	600~699만원	24(23.5)
			700만원 이상	30(29.4)
교육수준	자녀의 월령			
고졸 이하	0	2(2.0)	22개월~24개월	8(7.8)
전문대졸 또는 대학 중퇴	1(1.0)	2(2.0)	25개월~30개월	28(27.5)
대졸	56(54.9)	71(69.6)	31개월~36개월	26(25.5)
대학원 이상	45(44.1)	27(26.5)	37개월~42개월	31(30.4)
			43개월~45개월	9(8.8)
직업	자녀의 성별			
전문직	14(13.7)	22(21.6)	남자	52(51.0)
행정 및 관리직	18(17.6)	5(4.9)	여자	50(49.0)
사무직	60(58.8)	60(58.8)		
판매·서비스·생산직	6(5.9)	6(5.9)		
기타	4(3.9)	9(8.8)		

3.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은 양육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가진 서울시와 경기도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맞벌이 부부가 이용하는 6개의 직장보육시설은 연구자가 임의 표집 하였으며, 해당 어린이집의 만 1세반과 만 2세반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맞벌이 부부 102쌍, 총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제시한 <표 1>을 보면, 부부의 평균 연령은 25세~44세 범위에서 남편 36.2세($SD = 2.8$), 아내 34세($SD = 2.6$)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남편 대졸 56명(54.9%), 대학원 이상 45명(44.1%) 순으로, 아내는 대졸 71명(69.6%), 대학원 이상 27명(26.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직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 사무직으로, 각각 60명(58.8%)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700만원 이상(29.4%)이 가장 많았다. 자녀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가 1명인 경우(48%)와 2명(48%)인 경우가 동수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월령은 22~45개월 범위에서 평균 34.1개월($SD = 6.4$)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52명(51%), 여아 50명(49%)이었다.

2. 연구 도구

1)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Demaris와 Longmore(1996) 그리고 Kulik(1999)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강기연(2001)이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 있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은 9점에서 4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 총점의 Cronbach's α 는 남편이 .74, 아내는 .59이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는 .80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60 ~ .70이면 수용할 수준으로 여겨진다(이학식, 임지훈, 2009). 아내의 성역할태도 신뢰도 계수를 높이기 위해 신뢰도 계수가 가장 낮은 문항(8번 문항: "아내가 직장생활을 할 경우 남편은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을 제거하여도 신뢰도

계수가 .60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고, 남편의 성역할태도 신뢰도 계수는 오히려 .72로 감소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이 성역할태도를 묻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 판단되었기에 문항수를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사회적 지원

(1) 배우자의 협력

배우자의 협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Abidin(1988)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하위척도인 Teamwork(배우자의 협력)를 신숙재와 정문자(1998)가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숙재와 정문자(1998)의 연구에서 이 도구는 남편의 협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자가 남편의 협력, 아내의 협력으로 수정하여 아동학 전문가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배우자의 협력 척도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로서 서로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와 자녀를 평가하는 시각과 자녀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배우자와 얼마나 잘 합의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3점에서 65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배우자와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배우자의 협력 총점의 Cronbach's α 는 남편이 .84, 아내는 .89이었다.

(2) 주위의 도움

주위의 도움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원 척도를 신숙재와 정문자(1998)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배우자외의 주위에서 받을 수 있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이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2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자녀양육에서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위의 도움 총점의 Cronbach's α 는 남편이 .93, 아내는 .92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서혜영(1991)이 번안하고, 신숙재와 정문자(1998)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에 따라 '디스트레스',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하위 영역별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스트레스는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지

〈표 2〉 변인별 도구의 문항 수, 가능한 점수 범위, 실제 점수 범위와 내적 신뢰도계수

변인	측정변인	문항 수	가능한 점수범위	실제 점수범위	Cronbach's α	
					남편	아내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9	9~45	18~45	.74	.59
사회적 지원	배우자의 협력	13	13~65	26~65	.84	.90
	주위의 도움	12	12~60	20~60	.92	.92
양육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10	10~50	13~47	.69	.76
	자녀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10	10~50	10~33	.72	.76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0	10~50	10~43	.80	.84
	양육스트레스 전체	30	30~150	39~107	.84	.88

는 않다'와 같이 역기능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야기하는 부모 개인의 적응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모의 우울감, 역할 제한,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성이 포함된다.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아이는 나를 좋아하며, 나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써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유아수용, 부모에 대한 유아의 강화작용, 유아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그 세부 내용으로 한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상한다'와 같이 부모가 다루기 힘든 유아의 행동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함으로써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알려주는 것으로, 유아의 적응, 요구, 기분, 활동 정도를 그 내용으로 한다.

문항 수는 각 스트레스의 근원에 따라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응답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이다. 긍정문으로 표현된 11개는 역채점으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양육스트레스 총점의 Cronbach's α 는 남편이 .84, 아내는 .88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별 도구의 문항 수, 가능한 점수범위, 실제 점수 범위와 내적 신뢰도 계수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3. 연구 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영아기 자녀를 직장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연구의 본조사 대상이 아닌 맞벌이 부부 10쌍이었고, 2010년 7월 21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일반적 경향 질문지의 내용에서 응답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본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로 수정하였다. 또 자녀의 월령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본 조사용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연구자가 임의 표집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6곳의 직장보육시설에서 만 1세반과 2세반에 다니는 영아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담임교사를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는 총 140부를 배부하여 108부가 수거되어 77%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한쪽의 응답이 없거나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하고 총 102쌍 20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가 부부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둘째,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 검증(*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넷째,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의 부부 간 차이

맞벌이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표 3〉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의 부부 간의 차이

(N = 204)

		남편 (n = 102)		아내 (n = 102)		t(101)
		M(SD)		M(SD)		
사회적 지원	성역할태도 총점	33.16(4.94)		35.09(3.89)		-3.46***
	배우자의 협력	51.31(5.46)		51.01(6.95)		-.47
	주위의 도움	43.21(8.31)		45.65(8.64)		-2.42*
양육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26.74(4.63)		27.69(5.4)		-1.65
	아동과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20.08(4.38)		20.03(4.8)		.08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24.81(5.29)		25.38(6.09)		-.85
	총점	71.65(10.98)		73.10(13.19)		-1.02

* $p < .05$, *** $p < .001$

〈표 4〉 맞벌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N = 204)

관련변인		남편 (n = 102)		아내 (n = 102)	
		M (SD)	F	M (SD)	F
남편 직업	전문직	70.57(12.98)		68.71(15.68)	
	행정 및 관리직	72.94(10.66)		66.50(8.74) _a	
	사무직	71.02(11.12)	.40	74.88(13.10)	3.27*
	판매·서비스·생산직	73.00(9.14)		75.83(9.37)	
	기타	77.00(6.88)		87.25(11.92) _b	

주. a, b는 사후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집단임($b > a$, $p < .05$)
* $p < .05$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01) = -3.46$, $p < .001$). 즉,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남편보다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맞벌이 부부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 중 배우자의 협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위의 도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01) = -2.42$, $p < .05$). 즉, 맞벌이 부부의 아내는 남편보다 자녀양육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는다고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부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맞벌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맞벌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또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학력, 직업, 월수입, 자녀의 성별, 자녀의 월령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은 차이가 없었으며,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서만 일부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5〉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N = 204)

		양육스트레스							
		남편 (n = 102)				아내 (n = 102)			
		디스트레스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총점	디스트레스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총점
남편 성역할태도		-.21*	-.39**	-.06	-.27**	-.15	-.06	-.03	-.10
	아내 성역할태도	-.14	-.13	-.14	-.18	-.23*	-.06	-.11	-.17
남편의 사회적 지원	아내의 협력	-.43**	-.47**	-.36**	-.36**	-.26**	-.26**	-.26**	-.32**
	주위의 도움	-.30**	-.33**	-.25**	-.38**	-.09	-.16	-.05	-.12
	전체	-.40**	-.44**	-.33**	-.50**	-.18	-.23*	-.15	-.23*
아내의 사회적 지원	남편의 협력	-.26**	-.28**	-.16	-.30**	-.49**	-.57**	-.49**	-.63**
	주위의 도움	-.22*	-.03	-.13	-.17	-.45**	-.35**	-.21**	-.40**
	전체	-.29**	-.17	-.18	-.28	-.57**	-.55**	-.41**	-.62**

* $p < .05$, ** $p < .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남편의 직업($F(4, 97) = 3.27, p < .05$)에 따라 맞벌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편이 행정·관리직에 종사할 경우에 본 연구에서 기타 직업으로 응답한 대학강사, 번역가, 프로그래머 등에 종사할 때보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호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맞벌이 남편의 성역할태도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일부 하위요인($r = -.21 \sim -.39, p < .05$)과 맞벌이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중 디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r = -.23, p < .05$). 즉, 맞벌이 남편이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 맞벌이 아내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아내의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맞벌이 남편의 사회적 지원 중 아내의 협력은 남편과 아

내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에서($r = -.26 \sim -.47, p < .01$), 남편이 인식하는 주위의 도움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r = -.25 \sim -.38, p < .01$)에서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맞벌이 남편이 부모로서 아내와 협력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고 인식할수록 남편과 아내는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였다. 또한 맞벌이 남편이 자녀 양육에 있어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남편도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의 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협력은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일부 하위요인에서($r = -.26 \sim -.63, p < .01$), 아내가 인식하는 주위의 도움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r = -.21 \sim -.45, p < .01$)과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일부 하위요인($r = -.22, p < .05$)에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맞벌이 아내가 부모로서 남편과 협력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수록 아내와 남편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였다. 또한 맞벌이 아내가 자녀 양육에 있어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아내도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고, 남편도 양육스트레스의 일부 요인을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 남편의 직업에 따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서만 일부 차이가 나타나

〈표 6〉 변인들 간의 상호 상관계수

(N = 204)

	남편 (n = 102)					아내 (n = 1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남편	(1)	1											
	(2)	.26**	1										
	(3)	.28**	.50**	1									
	(4)	-.21*	-.43**	-.30**	1								
	(5)	-.39**	-.47**	-.33**	.39**	1							
	(6)	-.06	-.36**	-.25*	.40*	.36**	1						
아내	(7)	.21*	.12	.09	-.14	-.13	-.14	1					
	(8)	.29**	.47**	.10	-.26**	-.28**	-.16	.09	1				
	(9)	.04	.14	.29**	-.22*	-.03	-.13	.04	.33**	1			
	(10)	-.15	-.26**	-.09	.34**	.10	.10	-.23	-.49**	-.45**	1		
	(11)	-.06	-.26**	-.16	.25*	.09	.17	-.06	-.57**	-.35**	.41**	1	
	(12)	-.03	-.26**	-.05	.16	.15	.30	-.11	-.49**	-.21*	.41**	.63**	1

남편: (1) 성역할태도 (2) 아내의 협력 (3) 주위의 도움 (4) 디스트레스 (5)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6)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아내: (7) 성역할태도 (8) 남편의 협력 (9) 주위의 도움 (10) 디스트레스 (11) 자녀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12)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 $p < .05$, ** $p < .01$

〈표 7〉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의 중다회귀분석

		B		β	
남편 (n = 102)	성역할태도		-.23		-.10
	사회적 지원	아내의 협력	-.87		-.43***
		주위의 도움	-.13		-.10
아내 (n = 102)	성역할태도		-.27		-.09
	사회적 지원	남편의 협력	-.04		-.03
		주위의 도움	-.08		-.06
R^2				.33	
F				7.80***	

*** $p < .001$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적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독립변인에서 제외하고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집단별로 동시투입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이전에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6〉를 통하여 독립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일부 하위 요인 간에($r = .04 \sim .57$) 높은 상관관계가 보였으나 모든 변인들 간의 공차한계는 1.0보다 크며 VIF값은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편의 양육스트레스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이 인식하는 아내의 협력($\beta = -.43, p < .001$)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를 33%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표 8〉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의 중다회귀분석

		B		β	
남편 (n = 102)	성역할태도		.32		.12
	사회적 지원	아내의 협력	-.08		-.03
		주위의 도움	-.01		-.01
아내 (n = 102)	성역할태도		-.42		-.13
	사회적 지원	남편의 협력	-1.08		-.57***
		주위의 도움	-.33		-.21*
R^2				.47	
F				13.74***	

* $p < .05$, *** $p < .00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내의 사회적 지원 즉, 아내가 인식하는 남편의 협력($\beta = -.57, p < .001$)과 주위의 도움($\beta = -.21, p < .01$)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47%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에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 더욱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가치를 보유했던 남편들은 결혼생활에서 부부 간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근대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것이 그들의 결혼생활을 불리하게 할 것이라고 믿으며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차성란, 1998). 맞벌이 부부의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에서는 부부 간의 차이 없이 사회적 지원은 높게,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직장 생활을 이해해주고, 육아를 분담하며 주위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중 역할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사회적 지원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특수 상황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김리진, 윤중희, 2000).

둘째, 맞벌이 남편이 행정·관리직에 종사할 경우에 본

연구에서 기타 직종으로 응답한 번역가, 프로그래머, 대학 강사 등에 종사할 때보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한 김기현과 조복희(2000)의 연구에서는 부부 각자의 직업 유형과 직무만족도는 맞벌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맞벌이 남편의 직업에 따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서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직업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타 직종으로 응답한 대학 강사, 번역가, 프로그래머는 다른 직업에 비해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 또한 불규칙적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공통적으로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고, 아내는 '가사역할 스트레스'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최정혜, 2006), 가사와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맞벌이 아내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불규칙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남편 대신 부모역할과 가사역할을 모두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인생에서 대부분 직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지만 본 연구에서 행정·관리직으로 응답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부장급의 아버지는 다른 직종의 아버지들보다 이미 안정적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높은 월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맞벌이 남편과 아내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 때 역기능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야기하는 부모 개인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일과 가족 간의 갈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일과 가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촉진시킨다는 선행연구(한지숙, 유계숙, 2007)에 의해 뒷받침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맞벌이 부부의 사회적 지원 즉, 배우자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본인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김기현과 조복희(2000)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 각자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반대로 배우자의 지지가 낮은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민주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 서로 협력적인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lsky, 1984; Silver, Heneghan, Bauman, & Stein, 2006). 또한 주변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이해 받고 구체적인 도움과 양육에 필요한 조건과 정보, 도움을 언제든지 활용가능하다고 인식하면 양육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자기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이정신, 최영희, 2010)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부부 모두 각자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협력이었다. 남편의 협력이 높으면 아내의 심리적 복직감이 높아져 통제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며(김기원 외, 2010), 남편의 협력이 낮으면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기 때문에(신숙재, 정문자, 1998), 남편의 협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협력에 만족할수록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지원하고 도움을 받는다고 인식할 때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배우자의 협력이 양육스트레스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배우자의 협력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는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를 남편과 아내의 총점으로만 구분하여 살펴본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맞벌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 또는 전통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와 남편과 아내가 각각 근대적 태도와 전통적 태도를 가질 때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부부 간의 성역할태도 일치 정도에 따라 가정 내에서 부부의 자녀 양육 참여가 다를 것이고, 또 이에 따라 부부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임의 표집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모든 맞벌이 부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맞벌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가까운 곳에서 보육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이외에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유치원, 대리양육자를 통한 가정 내 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형태

를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원 중 배우자의 협력에 대한 질문지는 부부의 자기 보고에 의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서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부가 자녀 양육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도움을 주는 시간을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이 질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평일 중 남편이 자녀와 실내에서 놀아주기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를 묻는다면 남편에게도 “평일 중 자신은 자녀와 실내에서 놀아주기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와 같이 실질적인 양육 참여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부부 각자가 인식하는 배우자의 협력과 함께 실제로 그 배우자가 수행하고 있는 양육의 참여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면 좀 더 신뢰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아기 자녀를 두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연구에 남편을 포함시키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만 1~2세 자녀를 직장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및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기에 맞벌이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가정보다는 가정의 연소득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기에 이 점은 달리 생각하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기보다는 본 연구목적에 따른 표본 집단의 불가피한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특수한 집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가정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이자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점에서 이러한 집단에 대해 연구 분석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는 남편과 아내로써 서로의 성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의 협력에 대한 본인의 인식 정도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서 갖는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기연(2001).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 · 의사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9), 137-152.
- 강기정, 박수선(2007). 국내 맞벌이 부모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부모교육연구**, 4(2), 123-143.
- 강희경, 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관련 특성, 배우자의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기현, 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소영, 옥선화(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 김송이, 최혜영(200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대한가정학회지**, 45(8), 1-11.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혜영(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유우영, 최진아, 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이정신, 최영희(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1), 19-32.
- 이학식, 임지훈(2009). **SPSS 12.0 매뉴얼**. 경기: 법문사.
- 주재선(2007). 2007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차성란(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6(9), 139-152.
- 최정혜(2006). 맞벌이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4(6), 47-58.
- 한지숙, 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 촉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43-166.
- Abidin, R. R.(198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Unpublished Scale, University of Virginia.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rk, L. E.(1997). *Child Development*. Needham Height, MA: Allyn & Bacon.
- Bonds, D. D., Gondoli, D. M., Sturge-Apple, M. L., & Salem, L. N.(2002). Parenting stres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support and optimal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2(4), 409-435.
- Brooks, J. B.(1996). *The process of parenting*. Mountain View: CA: Mayfield.
- DeMaris, A., & Longmore, M. A.(1996). Ideology, power, and equity: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4(3), 1043-1071.
- Goldberg, W. A.(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personality, and spousal agreement about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for children. *Merrill-Parlmer Quarterly*, 36, 531-556.
- Kulik, L.(1999). Marital power relations, resources and gender role ideology: A multivariate model for assessing effec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0(2), 189-207.
- Maume, D. J.(2006). Gender differences in restricting work efforts because of family responsibilitie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8, 859-869.
- Peterson, G. W., & Hennon, C. B.(2005). Conceptualizing parental stress with family stress theory In P. C. McKenry, & S. J. Price (Eds.), *Family and change: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and transitions (3rd ed.)*. CA: Sage Publications.
- Silver, E. J., Heneghan, A. M., Bauman, L. J., & Stein, R. K.(2006).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 Child Health Journal*, 10(1), 105-112.

접 수 일 : 2011년	3월	28일
심사시작일 : 2011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7월	12일